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박연호**

|| 차례 ||

- I. 서론
- II. 가난(窮)의 의미
- III. 우환(迂闊)의 의미
- IV. 주제의식
- V. 결론

【국문초록】

〈누항사〉 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가난’의 문제이며, 주제의식과 관련된 핵심키워드 중 하나가 ‘우환’이다. ‘가난’은 작품에서 작가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는 핵심어이고, ‘우환’은 작가가 자신을 규정하는 핵심어이다.

본고에서는 ‘가난’과 ‘우환’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누항사〉가 지향하는 바 주제의식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누항사〉에서의 ‘가난’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사족으로서의 직분(治人)을 다할 수 없는 화자의 ‘불우한 정치적 처지’를 나타내며, ‘우환’은 부조리한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사족으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옹골케 지켜 나가려는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도가 어그러진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족으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박인로, 누항사, 가난, 탄궁, 우활, 안빈, 강호

I. 서론

‘가난’과 ‘우활’은 박인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박인로의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이 누가 당면했던 문제인가? <누항사>에서 ‘가난’한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¹⁾ 그에 따라 <누항사>의 창작 목적 및 주제에 대한 이해도 현저하게 달라졌다.

‘우활(迂闊)’도 마찬가지이다. 김유경은 궁핍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²⁾ 한창훈은 <누항사>의 궁

1) <누항사>에 형상화된 가난은 한창훈(『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pp.50-56)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가 박인로 자신의 처지로 보았다. 그러나 이동찬과 최현재(이동찬, 『<누항사>에 나타난 사족의 가난체험과 의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14-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p.61; 최현재, 『在地土族으로서 朴仁老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pp.185-194)는 박인로의 경험이 아니라고 보았다. 김용철은 박인로 자신을 포함하여 몰락해가는 남인의 형편에 대한 우의라고 파악하였다.(김용철, 『<陋巷詞>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한국가사문학연구』, 집문당, 1996, pp.274-275.)

한편 최근까지도 <누항사>에 형상화된 가난을 박인로 자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pp.94-97)와 “나라 전체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라는 견해(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意味』, 『고전과 해석』 2,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p.50)가 제출된 바 있다.

2) 김유경, 『<누항사>에 나타난 사실주의 양상』, 『연세어문학』 24, 연세대 국문과, 1992,

핍한 현실로 인해 이상을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감을 나타내는 자기 비하적 표현으로 이해하였다.³⁾ 최상은도 “어리고 迂闊 豁산 이 니 우히 더 니 었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폐한 “현실 상황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오는 자조적인 목소리”라고 하였다.⁴⁾

다시 말해 박인로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가사작품으로 표현했으며,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내지 한계를 ‘우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조적으로 한탄했다는 것이다. 우핍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누항사>에 제시된 ‘가난’을 박인로나 당대 사족들이 겪었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인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들은 사족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더구나 이덕형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시각은 재고를 요한다. 주지하다시피 박인로는 사족으로서의 위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대 거유들과 교유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향촌교화에 필요한 <요문가>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양반은 가난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⁵⁾는 양반의 체면의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사족으로서의 위신과 정체성을 누구보다 중시했던 박인로가 가난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갈등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작품을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⁶⁾ 더구나 가난한 살림살이를 표현한

p.54.

3) 한창훈, 앞의 논문, p.61.

4) 최상은, 『蘆溪歌辭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11, 한국시가학회, 2002, p.261.

5) 양반은 “굶주림과 추위를 가볍게 여기고 가난을 말하지 않는다(忽飢而寒 口不說貧)”, 박지원 <兩班傳>, 『燕巖集』.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연호, 『<陋巷詞>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회, 2008, pp.82-86 참조.

부분⁷⁾이 매우 해학적이어서, 가난의 성격 및 사실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난’과 ‘우환’의 의미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누항사>의 주제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II. 가난(窮)의 의미

지금까지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은 ‘부유(富裕)’의 대립적인 의미, 즉 경제적 곤궁함으로만 이해되었다. 기존논의에서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에 관한 쟁점은 박인로가 실제로 가난했는지, 누구의 가난을 대변한 것인지에 있다. 이 논의들은 모두 ‘가난’을 ‘부유’와 대립되는 경제적 궁핍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빈낙도(또는 江湖)의 이상과 궁핍한 현실 사이의 괴리, 즉 이념과 현실의 괴리에 주목한 논의도 모두 가난을 경제적 궁핍으로 파악하고 있다.⁸⁾

이처럼 기존논의에서는 가난을 경제적 궁핍으로 보았기 때문에 궁경(躬耕)을 위해 ‘소 빌리는 대목’도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가난’의 정도나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든 <누항사>에 대한 논란

7) 언매 만히 바든 밥의 懸鶉 稚子들은 / 장괴 버려 줄미뎡 나아오니 / 人情 天理에
 춤아 혼자 먹을년가.

다만 혼나 빈 독 우희 어론 털 도든 늘근 쥐는 / 貪多 務得 恣야 恣意 揚揚 訶니 白日아
 래 強盜로다 / 아야러 어든 거술 다 狡穴에 앓겨 주고 / 碩鼠 三章을 時時로 吟詠
 하며 / 歎息 無言 搔白首 鬢니로다 / 이 중에 탐살은 다 내집의 뢰했는다. 『蘆溪集』
 (古寫本).

8) 우응순, 「朴仁老의 『安貧樂道』意識과 自然」, 『한국학보』41, 일지사, 1985, pp.43-47; 최상은, 「安分과 嘆窮, 이념과 현실의 거리」, 『한민족어문학』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pp.7-14.

은 전혀 수그러들지를 않는다. 따라서 가난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누항사>에 제시된 '가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대인의 시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누항사>에서 '가난'을 직접 표현한 용어는 '안빈(安貧)', '빈곤(貧困)', '빈천(貧賤)', '빈이무원(貧而無怨)', '기한(飢寒)', '단사표음(簞食瓢飲)' 등이다. 이 중 '안빈(安貧)', '빈이무원(貧而無怨)', '단사표음(簞食瓢飲)' 등은 모두 『논어(論語)』에서 나온 표현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누항사>에 제시된 '가난'의 의미는 『논어』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경서(經書)에 사용된 '가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논어』와 『맹자』에서의 가난

『논어』와 『맹자』에는 '가난'과 관련한 다양한 용례가 나타난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귀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註：世治而無可行之道 世亂而無能守之節 碌碌庸人 不足以爲士矣 可恥之甚也

晁氏曰 有學有守而去就之義潔 出處之分明 然後 爲君子之全德也 (치세에 행할 도가 없고 난세에 지킬 절개가 없으면 하잘 것 없는 용렬한 사람으로, 선비라고 할 수 없으니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조씨가 이르기를 학문적 능력이 있고 절개가 있으며 거취의 의리가 깨끗하고 출처가 분명한 연후에야 군자의 온전한 덕이 된다.)

【『논어(論語)』<태백(泰伯)>】

인용문에서 치세(治世)엔 빈천(貧賤)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난세(亂

世)엔 부귀(富貴)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사(士)’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란 ‘치세(治世)’에는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며, 난세에는 절개를 지키는 것이다. ‘사(士)’가 치세에 ‘빈천(貧賤)’한 이유는 세상에 행할 도가 없기(無可行之道)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를 행한다는 것은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빈천(貧賤)’과 ‘부귀(富貴)’가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귀천(貴賤)’은 관직, 즉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말이며, ‘빈부(貧富)’는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인용문에는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귀천(貴賤)과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부귀(富貴)가 개념적으로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故士**窮**不失義**達**不離道

(때문에 선비는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현달해도 도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註：言 不以**貧賤**而移 不以**富貴**而淫 此尊德樂義 見於行事之實也

(빈천해도 의를 옮기지 않고, 부귀해도 음란하지 않는다. 이것이 덕을 존중하고 의를 즐기는 것이니 행사의 실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孟子)』 <盡心章句上>]

君子所性 雖**大行** 不加焉 雖**窮居** 不損焉 分定故也

(군자의 본성은 크게 행해져도 더할 것이 없고, 곤궁하게 거해도 덜어낼 것이 없다. 분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註：分者所得於天之全體 故不以**窮達**而有異

(분은 하늘에서 받은 모든 것이다. 때문에 궁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맹자(孟子)』 <盡心章句上>]

인용문에서 ‘궁(窮)’은 ‘빈천(貧賤), 궁거(窮居)’와 동일한 의미로, ‘달

(達)은 '부귀(富貴), 대행(大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용문에서 '궁(窮)은 크게 도를 행하고 그 결과로 부귀하게 되는 것과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인용문에서 '궁(窮)은 경제적 궁핍보다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도를 펴지 못하는 정치적 소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士)'의 존재 의의는 '치인(治人)'에 있기 때문에⁹⁾ 정치적 지위인 '귀천(貴賤)'을 대신하여 경제적 상태인 '빈부(貧富)'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을 경제적 궁핍으로만 한정하여 이해하는 시각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박인로 작품에서의 가난

아래 인용문은 박인로의 작품 중에서 가난과 관련된 글이다.

9) 사대부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삶이 치인(治人), 즉 관료라는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나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알 수 있는 바, 수신(修身)이나 수(修己)의 궁극적인 지향이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나 '치인(治人)'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효의 시작은 보신(保身)을 의미하는 불감훼상(不敢毀傷)이지만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인 것이다.

'士'의 직분과 존재의의에 관해서는 『맹자』의 다음 구절들에 잘 나타나 있다.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滕文公章句上]

(大人的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이 하는 바를 갖추어도,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쓴다면, 이것은 天下 사람들을 몰아다가 길에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마음을 쓰며, 혹자는 힘을 쓴다.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이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먹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의이다.)

士之失位也 猶諸侯之失國家也(士가 관직을 잃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

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士의 관직은 농부의 밭갈이와 같다) [이상 滕文公章句下].

年老家 貪 客不來	늙고 가난하여 손님도 오지 않고
但看黃鳥自飛來	다만 황조가 스스로 날아오는 것만 바라보네
松牕晝永無餘事	송창에 낮은 긴데 일은 없고
更有閑雲任去來	한가한 구름만 멋대로 오가네

<만흥(謾興)>¹⁰⁾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가난(家貧)’이 ‘늙음(年老)’과 함께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늙음’은 힘이나 영향력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문에서의 ‘가난’은 ‘경제적 어려움(生活苦)’이 아니라 대사회적 영향력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 두 작품은 가난의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聞道鶯花 不棄貧	피꼬리는 가난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 들었으니
日三來訪 布衣身	매일 세 번 포의의 몸을 찾아오네.
莫言巧舌元無信	간사한 혀로 원래 신의 없다고 말하지 마라
厚意諄眞却 勝人	도타운 뜻 살뜰하여 사람보다 낫도다

<황조무세태(黃鳥無世態)>

舉目南郊物色新	눈 들어 남쪽 교외를 보니 물색이 세로와
千林萬樹一般春	온 숲과 나무가 모두 봄이네
東風不慣 人間事	동풍은 인간사에 익숙지 않아
吹入庭中 不棄貧	뜰로 불어 들어와 가난한 사람을 버리지 않네

<사시음팔영(四時吟八首), 우춘(右春)>

위의 두 작품에서 가난의 결과는 ‘버림을 받는 것(棄)’이다. 두 작품에서

10) 『蘆溪先生文集』卷一.

화자를 버리지 않고(不棄) 찾아오는 것은 자연인 '앵화(鶯花)'와 '東風' 뿐이다. <황조무세태(黃鳥無世態)>의 “莫言巧舌元無信 厚意諄眞却勝人”은 세상 사람들이 신의(信義)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고, “東風不慣人間事”는 ‘가난한 사람을 버리(棄貧)’는 인간사(人間事)를 지적한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가난’은 ‘포의(布衣)’ 즉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빈(棄貧)’은 ‘신의(信義)’가 아닌 현실적 권력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는 세태를 말한다. 두 번째 인용문의 ‘인간사(人間事)’도 첫 번째 인용문의 제목인 ‘기빈(棄貧)’하는 ‘세태(世態)’를 가리킨다. 위 두 작품에서 ‘가난(貧)’은 경제적 곤궁함이 아니라 관직이 없이 ‘포의(布衣)’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박인로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방축의식(放逐意識)’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자신의 재능과 직분을 세상에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가난’의 실질적인 의미이며, 이런 점에서 방축의식은 ‘포의(布衣)’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巖上持竿消永日	바위 위에서 낚싯대 들고 긴 날을 보내고
花前獨酌醉深春	꽃 앞에 홀로 잔질하며 깊은 봄에 취하네
明時衆棄無相訪	명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아무도 찾지 않으니
自謂湖山老主人	스스로 호산의 늙은 주인을 자처하네

<춘일영회(春日詠懷)>

11) <누항사>는 기존 논의(최현재,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pp.135-155)에서 지적되었 듯이 放逐意識이 나타나는데, 방축의식이란 세상에 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窮’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용문에서 호산주인(湖山主人)을 자처하는 화자는 봄을 맞아 낚시로 소일을 하고 꽃을 마주하여 홀로 술을 마시며 봄기운에 취한다. 기구와 승구는 은자의 유유자적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제시된 은자적 여유는 화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衆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삶이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한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궁경(躬耕)이다. 기존논의에서 궁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乘涼步出早朝耕	서늘한 때를 틈타 나가 아침 일찍 밭을 갈고
罷釣歸來午後耕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며 오후에 밭을 가네
吾豈厭貧求富者	내 어찌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구하라
不妨蓑笠雨中耕	우장을 꺼리지 않고 빗속에 밭을 가네

莫言干祿勝於耕	벼슬살이가 밭갈이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라
干祿焉能及此耕	벼슬살이가 어찌 이 밭갈이만 하겠는가
宦路有時榮與辱	벼슬살이에는 때때로 영광과 욕됨이 있으니
無榮無辱莫如耕	영광도 욕됨도 없는 건 밭갈이만 한 게 없다네

<이상 경전가십운(耕田歌十韻)>

첫 번째 인용문에서 밭갈이는 부유함과 대립되는 가난의 상징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밭갈이는 ‘벼슬살이(干祿, 宦路)’와 대립되는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박인로는 ‘궁경(躬耕)=가난(貧) ↔ 벼슬살이(干祿, 宦路)=부(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벼슬살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벼슬살이가 밭갈이보다 낫다고 하지만, 벼슬살이에는 영욕

(榮辱)이 있지만 밭갈이는 영욕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자신은 벼슬살이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밭갈이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당대 벼슬살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心長才短一未售	마음만 장대하고 재주가 짧아 하나도 행하지 못한 채
虛老江村而已矣	헛되이 강촌에서 늙어갈 뿐이네
報國初心竟歸空	보국하려는 초심이 마침내 헛것으로 돌아오니
西望涕淚而已矣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뿐이네
烏鳥深情亦未報	까마귀의 깊은 정 역시 갚지 못하고
終身孺慕而已矣	평생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할 뿐이네
獨也天末孤輪月	하늘 끝에 걸린 외로운 달만이
照我丹衷而已矣	나의 일편단심을 비취줄 뿐이네
...중략...	
堪嗟世人莫我知	아! 세상사람 나를 알지 못하니
獨樂安分而已矣	홀로 안분을 즐길 뿐이네

<안분음(安分吟)>

위 인용문에서 박인로는 큰 뜻(心長)을 품었지만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이 강촌에서 헛되이 늙어간다고 하였다. 큰 뜻은 임금의 은혜를 갚는 것(報國), 즉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도와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이런 충정(丹衷)을 알아주지 않기에 궁벽한 시골(江村)에서 헛되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자가 궁벽한 시골에서 안빈낙도를 즐기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 점에서 ‘안빈’은 박인로의 이상(理想)이 될 수 없으며, 방축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래 시는 박인로의 방축의식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離群脫俗入山中	세속을 벗어나 산중으로 들어와
獨釣苔磯細柳風	태기에서 홀로 낚시하니 버드나무에 바람이 이네
千載非無西伯獵	천 년 전 西伯의 사냥과 같은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可憐虛老一溪翁	가련하도다. 헛되이 늙은 한 계옹이여.

<노계복거(蘆溪卜居)>

화자는 산속 낚시터에서 홀로 낚시를 하면서 천 년 전 주나라 문왕(西伯)의 사냥과 관련된 고사를 떠올린다. 『사기(史記)』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의하면, 강태공은 위수(渭水)가에서 낚시질을 하며 끈궁하게 살면서 자신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렸다. 주 문왕 서백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 남쪽에서 낚시질을 하는 강태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 일을 이야기한 후 수레에 태워 함께 궁으로 돌아와 군사(軍師)로 삼았다고 한다.

위 시에서 화자는 강태공처럼 자신의 능력을 알아 줄 귀인을 만나지 못하고 하릴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다. 즉 그의 방축의식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가 없기에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없고, 다만 누항(陋巷)에서 밭갈이와 낚시질(耕田釣魚)로 세월을 보낸다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인로의 작품에서 ‘가난’은 ‘현달(顯達)’과 대비되는 ‘궁(窮)’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누항사>에서 “가시 영긴 묵은 밭도 용이케 갈 수 있지만, 허당 반벽에 쓸 데 없이 걸린 소뿔”은 이와 같은 화자의 방축의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인로가 바랐던 삶은 ‘治人’이라는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작품에 제시된 경제적 궁핍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① 風朝 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 서 흙 밥 닷 흙 粥에 煙氣도 하도
할샤 / [언매 만히 바든 밥의 懸鷄 稚子들은 / 장기 버려 즐미덧 나아오니
/ 人情 天理에 춤아 혼자 먹을넌가] / 설 데인 熟冷에 빈 비 석일뿐이로다

② ㄹ올히 不足거든 봄이라 有餘하며 / 주머니 뷔엿거든 甌이라 담겨시라
/ [다만 혼나 빈 독 우히 어론 털 도든 늘근 쥐는 / 貪多 務得하야 恣意 揚揚
하니 白日아래 強盜로다 / 아아러 어든 거슬 다 狡穴에 앓겨 주고 / 碩鼠
三章을 時時로 吟詠하며 / 歎息 無言하야 搔白首 썩니로다 / 이 중에 탐살은
다 내집의 피웠느다]

③ 一奴 長鬚는 奴主分을 이젓거든 / 告余 春及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 耕當 問奴 근들 놀드려 물물느고 (이상 『蘆溪集』)

첫 번째 인용문은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에게 밥을 빼앗기다시피 넘기
고 숟가락으로 허기를 채우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기 버려 즐 미덧 나아오니”라는 표현이다. 지금은 없어진 표현으로 보
이지만, “장기를 벌려 놓은 곳에 즐 밀 듯 나아온다.”라는 표현은 당대에
사용되었던 속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기관에서 즐(卒)은 앞이나 옆으
로만 이동이 가능할 뿐 절대로 뒤로 후진하지는 못한다. 이 부분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누덕누덕 기운 웃을 입은 자식들이 오랜만에 밥을 구경하자
눈이 뒤집혀 아버지 뒤통으로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관의 출처처럼 밥상 앞으로 무조건 바짝바짝 접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
기 때문이다. 마치 <홍부전>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인용문은
가난한 형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속담을
가져다가 해학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작가의 가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어른 털 도든 늘근 쥐”라는 표현부터 우습다. 늙은 쥐는 당연히 어른 털이 돌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활함을 연상시키는 늙은 쥐가 곡식 몇 알을 어렵게 얻은 후 잘난 척하는 모습이나 그것을 보고 ‘대낮의 강도’라고 부르는 화자나, 쥐를 쫓기보다는 머리를 긁적이며 『시경(詩經)』의 <碩鼠三章>을 읊조리는 모습 등은 모두 가난의 절박함에 대한 공감보다는 웃음을 유발시킬 뿐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지은 <기노동(寄盧仝)>의 일부인 “一奴長鬚不裹頭 一婢赤脚老無齒”을 차용한 표현이다. 즉 작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세 인용문 모두 작가가 당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인용문은 ‘가난’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 경전뿐만 아니라, 박인로의 한시들에서도 ‘가난’이 정치적으로 불우한 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의 세 인용문들도 ‘정치적 불우함’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살펴본 바, ‘가난’은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우함을 함께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누항사>에 제시된 가난도 경제적 어려움과 일정정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조리한 세태, 일그러진 세도에서 기인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누항사>에 제시된 가난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적 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가 학문에 힘쓰는 이유는 자신의 계급적 직분인

‘치인(治人)’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면 현실을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이 탐구해 온 학문적 진리(道) 그 자체를 즐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빈이무원(貧而無怨)’,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가난을 입에 담지 않는 사대부의 체면의식을 굳이 상기하지 않고 작품의 지향이나 주제와 관련시켜 볼 때도 정치적 불우함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항사>를 포함한 박인로 작품에서의 ‘가난’은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사대부의 직분인 ‘치人’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방축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박인로는 <누항사>에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를 ‘우환’ 때문이라고 하였다.

Ⅲ. 우환(迂闊)의 의미

박인로는 <누항사>의 서두를 “어리고 迂闊홀산 이니우히 더니업다”라고 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우환(迂闊)하다고 하였다. 우환의 실체는 “吉凶禍福을 하늘의 부처 두고 陋巷 깃뭇 곳의 草幕을 지어 두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곤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줄 모르는 것이다.

<누항사>에 나타난 ‘우환’은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것을 빼앗기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歎息 無言 扞야 搔白首 聃니로다)이다. 세 번째는 “一家”를 돌보

지 못해 궁경(躬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며, 네 번째는 하루아침 부릴 소도 빌리지 못한 것이다.

화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술 고기 이시면 眷黨벗도 하렷마는
 두 주먹 뷔게 쥐고 世態 업슨 말슴에
 양조 하나 못 고오니
 흐르 아적 불일 쇼도 못 비러 마랏거든
 흐들며 東郭墻間의 醉홀 뜻을 가딜소나

인용문에서 화자가 “흐르 아적 불일 쇼도 못” 빌리고, “東郭墻間의 醉홀 뜻을 가딜” 수 없는 이유는 “술 고기”가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세태에 맞지 않은 말만 하며, 모습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술 고기”는 구체적으로는 “건넌 집 저 사람이” 소를 빌리기 위해 “어제 밤의” “玉脂泣게 꾸어” 낸 “목 불근 수기雉”와 “醉토록 勸”한 “간 이근 三亥酒”를 말한다. 여기에서 화자의 우활함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쇼 흐 적 듀마하고 업심이 흐는 말삼”을 굳은 약속으로 믿었다는 점이다. 주인이 인사치레로 한 말을 진지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다.¹²⁾ 두 번째는 남의 것을 빌리기 위해서는 약속보다 모종의 ‘정성(精誠)’¹³⁾이 필요

12) 앞서 살펴본 바, 아래 시에서 피꼬리의 신의가 사람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세태를 꼬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聞道鶯花不棄貧 피꼬리는 가난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 들었으니
 日三來訪布衣身 매일 세 번 포의의 몸을 찾아오네.
 莫言巧舌元無信 간사한 혀로 원래 신의 없다고 말하지 마라
 厚意諄眞却勝人 도타운 뜻 살뜰하여 사람보다 낫도다 <황조무세태(黃鳥無世態)>

13) 근대 이전에는 “정성(精誠)”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떡값’과 비슷하게 ‘뇌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디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남에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도(약속, 신의)가 아닌 편법(뇌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고, 편법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그것을 실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앞서 살펴본 ‘인간사(人間事)’와 ‘세태(世態)’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눈치도 없어서(世態 업슨)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건 말건 바른말만 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오로지 성인을 모범삼아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바로잡고, 관직에 있지 않았지만 바른 말을 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기노동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세속적 욕망이나 현실의 논리보다는 세태를 비판하며 이념적 차원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世態 업슨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원칙을 깐깐하게 따지고 분명하게 잘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야말로 ‘곱지 못한 양자(樣姿)’라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흐르 아적 블일 쇼도 못 비러 마랏거든 흐몰며 東郭播間의 醉홀 뜻을 가딜소냐”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우활함과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보인다. 간단한 일(하루아침 소 빌리기)도 못하면서 큰 일(東郭播間의 醉홀 뜻)을 어찌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反語)이다. ‘東郭播間의 醉홀 뜻’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맹자(孟子)』 <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에 아내와 첩을 둔 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밖에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뒤에 돌아왔다. 그 아내가 누구와 마시고 먹었는가를 물으면 모두 부귀(富貴)한 자라고 하였다.

그의 아내가 그의 첩에게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고 돌아오는데,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을 물으면 모두 부귀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름난 사람을 데리고 온 일이 없으니, 내 장차 남편이 가는 곳을 엿보리라” 하고,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 갔는데, 온 나라 안을 두루 다녀도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동쪽 성(城)밖의 무덤 사이(東郭墦間)의 제사지내는 사람에게 가서 남은 음식들을 구걸하고, 부족하면 또 돌아보아 다른 데로 가니, 이것이 그가 물리도록 배불리 먹는 방법이었다.

아내가 돌아와 첩에게 말하기를 “남편이란 평생토록 우러러 봐야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하다”하고, 첩과 같이 남편을 나무라며 서로 뜯 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다. 남편이 알지 못하고 신이 나서 밖에서 돌아와 그 처첩에게 교만하였다.

군자의 안목(眼目)으로 보건대, 사람들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 치고 그 처첩이 부끄러워하며 서로 울지 않을 일이 드물다.

조씨가 이르기를 “지금의 부귀를 구하는 자가 굽은 도로써 어두운 밤에 애걸하여 구해서 대낮에 사람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 이 사람과 어찌 다르겠느냐?”라고 하였다.¹⁴⁾

인용문에서 ‘東郭墦間의 醉糶 뜻’은 구걸[굽은 도(枉曲之道)]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다. 즉 박인로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정도(正道)’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는 세태를 반어를 통해 비판한 것이다. 이점에서 앞의 소빌리는 장면은 정도(약속)를 버리고 굽은 도(술고기)를 선택해야만 목적하는 바(소빌

14) 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反 其妻問所與飲食者 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 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反 問其與飲食者 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矚良人之所之也 蚤起 施從良人之所之 徧國中無與立談者 卒之東郭墦間之祭者 乞其餘 不足又顧而之他 此其爲饜足之道也 其妻歸 告其妾曰 良人者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其妾誚其良人 而相泣於中庭 而良人未之知也 施從外來 驕其妻妾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不羞也 而不相泣者 幾希矣

趙氏曰 言今之求富貴者 以枉曲之道 昏夜乞哀以求之 而以驕人於白日 與斯人何以異哉.

리기를 성취할 수 있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주제의식

이상에서 살펴본 바, 박인로는 원칙을 지키며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은 정도(正道)가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

飢寒이 切身하다 一丹心을 이질는가
 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橐于囊의 줌증이 모와 녀코
 兵戈五載에 敢死心을 가져 이서
 履尸涉血하야 몇 百戰을 지느연고
 一身이 餘暇 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인용문은 <안분음(安分吟)>에 제시된 ‘보국초심(報國初心)’의 구체적 예이며, 사대부의 직분의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보국초심이 헛일이 되었다¹⁵⁾는 탄식은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세태에 대한 비판이자 탄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安分’이었다.

이런 박인로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안분음(安分吟)>이다. <안분음>은 현실인식과 삶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누항사>와 매우 닮아 있다. <안분음>에서 화자는 가난한 형편에도 안빈낙도할 것을 다짐한

15) 報國初心竟歸空 보국하려는 초심이 마침내 헛것으로 돌아오니 <안분음>

다. 대대로 전할 유업은 임보(林逋)나 도연명(陶淵明)이 사랑했던 ‘죽매송국(竹梅松菊)’뿐이다. 마음속엔 오직 ‘효우(孝友)와 ‘청백(清白), ‘충효(忠孝)’만을 품고 있지만 자신의 충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안빈낙도를 즐길 뿐이다. 화복(禍福)과 궁달(窮達)은 천명(天命)에 맡기고 순리를 따르며 심성수양(養性怡神)에 힘쓸 뿐이다. 마음에 바라는 바는 오직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俯仰無愧)뿐이다. 화자는 이러한 야로(野老)의 삶을 ‘부귀(富貴)’와 대립되는 ‘빈천(貧賤)’한 삶, 즉 ‘안빈(安貧)’으로 보았다.

<안분음>에서는 서두부터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지은 <기노동(寄盧仝)>의 표현을 차용하고 있는데,¹⁶⁾ <안분음>과 <누항사>에 제시된 삶의 양태가 여러 모로 <기노동>에 제시된 노동의 삶과 닮아 있다. 당(唐)나라 한유(韓愈 : 768~824)는 노동(盧仝, ?~835)에게 보낸 <기노동(寄盧仝)>이라는 글에서 노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은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모님과 처자식을 봉양하는 데 힘쓴다. 세속에 물든 무리들을 미워하여, 봉당의 횡포를 풍자한 <月蝕詩>를 짓기도 했다. 재주가 커서 크게 쓰일 것이지만 재상 정도의 자리가 아니면 출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이란 성인의 경서를 연구하며 오로지 성인을 모범삼아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다.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른 말을 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할

16) 박인로의 <안분음>과 한유의 <기노동>의 서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道川川上無何翁 破屋數間而已矣…중략…一奴長鬚走不還 一婢赤脚而已矣 <안분음(安分吟)>.

玉川先生洛城裏 破屋數間而已矣 一奴長鬚不裹頭 一婢赤脚老無齒. <기노동(寄盧仝)>.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나는 바, <안분음> 서두의 가난한 살림살이의 모습은 <기노동>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는 군자의 품모가 있다. 이것이 그가 자손을 위해 마련한 유일한 터전이다. 그의 충효는 천성으로 타고난 것이었기에 '潔身亂倫'¹⁷⁾하는 무리는 흉내 낼 수 없다.¹⁸⁾

인용문에 제시된 가난한 살림살이, 세속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것, 성인을 본받으려는 태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 충효에 충실한 것 등 노동의 삶은 박인로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 <안분음>에서 한유의 <기노동>의 표현을 차용한 것은 박인로가 노동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유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양태는 치인(治人)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

17) 자기 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 『論語』 <微子篇>에서 子路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다. 장유(長幼)의 예절도 폐할 수 없는 데, 군신(君臣)의 의리를 어찌 폐한단 말인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대륜(大倫)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살이를 하는 것은 그 의리를 행하는 것이다. 정도(正道)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은 이미 아시고 있다.(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 而亂大倫 君子之仕也 行其義也 道之不行 已知之矣)”『論語』 <微子篇>.

18) 玉川先生洛城裏 破屋數間而已矣 一奴長鬚不裹頭 一婢赤脚老無齒 幸勤奉養十餘人 上有慈親下妻子…중략…先生事業不可量 惟用法律自繩己 春秋三傳東高閣 獨抱遺經究終始…중략…先生抱才終大用 宰相未許終不仕 假如不在陣力列 立言垂範亦足恃 苗裔當蒙十世宥 豈謂貽厥無基址 故知忠孝出天性 潔身亂倫安足擬. <寄盧全>.

선택할 수 있는 차선(次善)이 ‘안빈낙도(安貧樂道)’인 것이다. <누항사>와 관련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이상적 가치로, 가난을 고달픈 현실로 보는 것은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누항사>의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가난’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인 ‘治人(報國)’을 수행할 수 없는 불우(不遇)한 처지를 의미한다. 화자가 ‘치인(治人)’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몸담고 있던 현실이 신의(信義)와 정도(正道)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의 삶이 ‘안빈(安貧)’이었다.

이 작품은 ‘끼니를 잊지 못함 → 안분일념(安分一念) → 부족한 곡식 → 일단심(一丹心) 및 참전 → 피폐한 가정형편 → 궁경(躬耕)의 의지 → 소빌리기 실패 → 강호(江湖)의 한 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은 ‘어려운 상황 → 사대부의 직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상황에 꺾이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 또한 갈수록 견고해 진다.¹⁹⁾ 이는 작품의 주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환’은 표면적으로 현실의 논리에 어두워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사대부가 마땅히 지켜야할 정도를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다.

19) 자세한 논의는 박연호, 「<陋巷詞>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28, 개신어문학회, 2008, pp.95-96 참조.

【참고문헌】

『蘆溪先生文集』

『蘆溪集』(古寫本)

『논어(論語)』

『맹자(孟子)』

『燕巖集』

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意味」, 『고전과 해석』2,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7, p.50.

김용철, 「<陋巷詞>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한국가사문학연구』, 집문당, 1996, pp.274-275.

김유경, 「『누항사』에 나타난 사실주의 양상」, 『연세어문학』24, 연세대 국문과, 1992, p.54.

박연호, 「<陋巷詞>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28, 개신어문학회, 2008, pp.82-86, 95-96

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pp.94-97.

우용순, 「朴仁老의 『安貧樂道』意識과 自然」, 『한국학보』41, 일지사, 1985, pp.43-47.

이동찬, 「<누항사>에 나타난 사족의 가난체험과 의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14-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p.61.

최현재, 「在地士族으로서 朴仁老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pp.185-194.

_____,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pp.135-155.

최상은, 「安分과 嘆窮, 이념과 현실의 거리」, 『한민족어문학』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pp.7-14.

_____, 「蘆溪歌辭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11, 한국시가학회, 2002, p.261.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pp.50-56, 61.

Abstract

The Meaning of 'the Poverty' and
'the Unfamiliarity' Appeared in <Nuhangsa>

Park, Youn-Ho

In the study of <Nuhangsa> the point keywords are 'the poverty' and 'the unfamiliar with the world'. The poverty speak for the difficult situation of author and the unfamiliarity is a keyword of author's self regul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me of <Nuhangsa> by study the meaning of poverty and unfamiliarity. As a result, the meaning of poverty is nearer the political unsuccessful situation than the financial difficulty. And the unfamiliarity is the irony of author's will that never to swim with irrationalities of the society and to keep up his duty and identity as a nobleman. The most important duty of Nobleman is to realize the confucian utopia as a government official.

And to conclude, author criticize sharply irrationalities of the society and express his will that to keep up his duty and identity as a nobleman through <Nuhangsa>

Key Word : Park Inro, Nuhangsa, poverty, unfamiliarity, being content with poverty, confucian nature

박연호

소속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43-261-2096 / 010-3277-1792

전자우편 : pyhjh@chungbuk.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